

국민행복지수의 이해와 활용

2013. 5. 14

16:00~17:30 국회의정관 105호



포럼 순서

- 발 제: 한 준 교수 연세대학교 사회학과
- 토 론: 윤연옥 실장 통계청 통계개발원

삶의 질: 개념과 측정

경제성장과 행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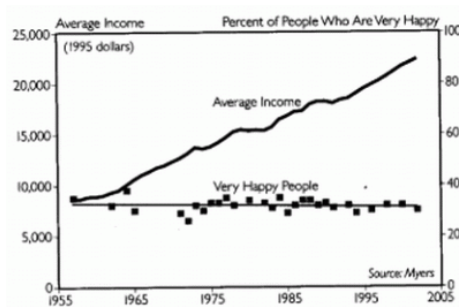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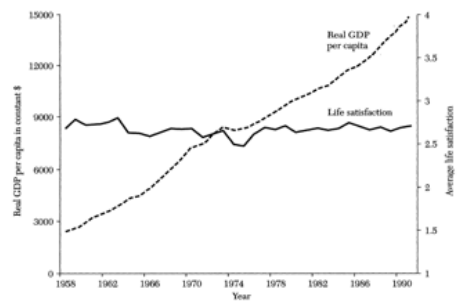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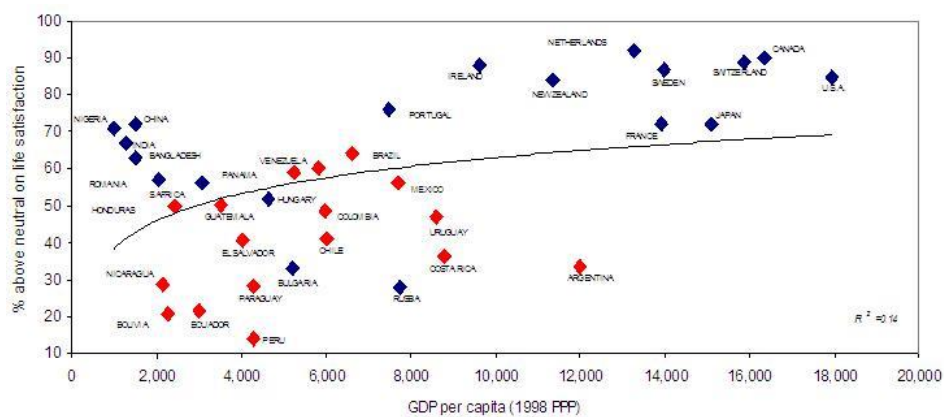


Figure 8-1. Average Income and Happiness in the United States, 1957-2002



- GDP는 국민의 행복과 어떤 관계인가?
- Easterlin Paradox



삶의 질: 개념의 역사

- 20세기 초반 Pigou의 최초 사용
- 1960년대 사회지표운동과 삶의 질:
풍요한 사회의 자기성찰(미국과 스웨덴의 사례)
- 2000년대 삶의 질의 재등장:
글로벌리제이션과 불평등, 높은 위험과 불안이 배경

행복한 삶의 대한 철학적 논의

- Prudential: Aristotle & Kant
가치의 실현
- Hedonistic: Epicouros & Utilitarian
쾌락과 고통의 회피
- Psychological:
경험의 중요성

삶의 질: 이론적 쟁점과 논의

- 개인의 삶 vs 사회의 집합적 삶
- 주관적 판단 vs 객관적 평가
- 욕구의 충족 vs 능력과 선택의 기회
- 기준 가치의 동일성 vs 다양성

삶의 질: 측정의 쟁점들

- 복구의 객관적 자원중심의 측정
- 미국의 주관적 만족도 중심의 측정
- Stiglitz 위원회:



삶의 질: 해외 사례

일본

- 국민생활지표(PLI)→ 구조개혁지수 (LRI) 실용적 접근
- 주관/객관 혼합

캐나다

- 웰빙 지수(CIW) 웰빙 만다라 모형
- 주관/객관 혼합

부탄

- 국민총행복(GNH) 주관적 지표 중심의 거리 지수 계산

네덜란드

- 생활상황지수(LSI) 객관적 지표 중심

호주

- 호주번영척도(MAP) 객관적 지표 중심

삶의 질: 해외사례(국제비교)

UNDP의 인간개발지수(HDI):

- 수명 + 교육수준
+ 생활수준
- 객관적 지표 중심
- 단순함의 한계

OECD의 삶이 어떤가요? (How's Life?):

- 물질적 생활수준 +
삶의 질 + 지속가능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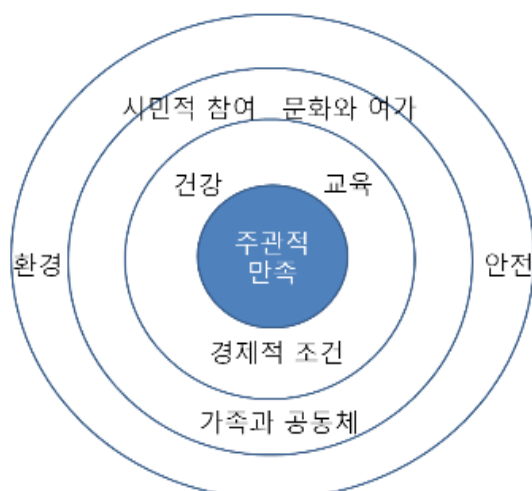
삶의 질 영역

- 주택, 소득, 일자리,
공동체, 교육환경,
거버넌스, 건강,
생활만족도, 안전,
일-생활 균형

삶의 질 구성영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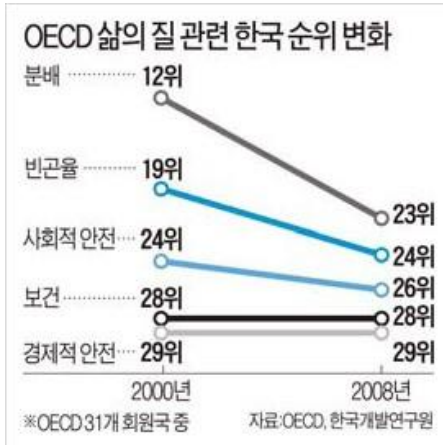
주관적 만족	life satisfaction
경제적 조건	housing
	income
	jobs
건강	health
교육	education
가족과 공동체	community
문화와 여가	work-life balance
시민적 참여	governance
안전	safety
환경	environment

삶의 질 영역간 체계



- 역량 있는 개인
- 서로 돌보는 활기찬 공동체
-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

한국인의 삶의 질: 국제비교



삶의 질 개념과 측정 토론문

윤 연 옥

(통계청 동향분석실장)

□ ‘삶의 질 개념’ 관련

-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대표적 개념은 wellbeing임
 - OECD에서는 70년대 사회지표운동 시기부터 wellbeing을 사용
 - 우리의 경우 당시 OECD 미가입 국가로 UN의 권고에 따라 ‘삶의 질’ 개념을 사용하여 왔음(한국의 사회지표)
- ‘삶의 질’은 개인, 사회, 주/객관, 환경을 포괄하는 개념임
 - 개인의 삶과 집합적인 사회적 삶을 포괄(삶의 질, 사회의 질 포괄)
 - .예) 개인의 건강과 함께 건강의 사회적 불평등(차이)에도 동시에 관심
 - .예) 사회통합, 거버넌스 등에도 관심을 가짐
 - 주관적 판단과 객관적 평가 모두를 활용하는 절충주의가 일반적
 - 객관적 평가 지표를 주로 활용하고 주관지표도 동시 활용
 - * 영역별 만족도(주관적 건강평가, 주거만족도, 교육만족도 등)
 - 주관적 웰빙(subjective wellbeing=행복)도 독립 영역으로 별도 측정
 - * (과거)긍정/부정적 정서평가, (현재)삶에 대한 만족도, (미래)삶의 의미(유데모니아)
 - 환경은 생활 환경(대기, 소음, 수질, 녹지 등)과 함께 지속가능성 개념을 통해 동시에 반영
 - 지속가능성은 웰빙에 시간개념을 도입한 것으로, 세대간 웰빙의 형평성 차원에서 도입된 차원임(웰빙과 지속가능성을 병렬)
 - OECD의 웰빙측정 프레임에 지속가능성은 포함되고 있으나, 아직 지표는 미개발(사회자본, 인적자본, 자연자본, 재정·생산 자본)

□ ‘삶의 질 측정’ 관련

○ 다양한 철학적, 이론적 시각이 양립

- 주관주의(주관적 웰빙)와 객관주의(복유립, Sen의 역량개념), 후생경제학의 공정 분배 시각 등
 - ⇒ (지표선정) 어떤 지표를 선정할 것인가(측정의 논거)에 대한 시각이 경쟁하고 있음
- 절충주의적 시각이 일반적이나, 이론적 시각에 따른 지표선정의 근거가 상이함(불평등은 어느 정도가 최적인가에 대한 논거 없음)
 - ⇒ (선정주체) 누가 지표를 선정할 것인가(국민, 전문가) 등의 문제제기
- 전문가가 선택시 Top-down, 국민 선택시 Bottom-up 방식, 두 방식 모두를 적용하는 혼합식(전문가 측정틀을 제시하고 국민이 선택)이 존재
- 캐나다의 경우 다양한 전문가와 지역민이 동시 참여, 영국 통계청은 일반 국민 대상 의견수렴(5개 항목)
 - ⇒ (가중값) 어떤 지표가 다른 지표에 비해 얼마나 중요한가? 이를 누가 결정해야 하는가?
- 가중값 부여는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 발생
 - ⇒ (추진주체) 정부기관 VS. 민간
- 일본(내각부, 웰빙측정위원회), 영국(통계청) 등은 정부기관에서 추진
- 캐나다, 네덜란드, 멕시코 등은 민간(NPO, 대학)에서 추진

○ 통계청의 입장

- 지표체계의 타당성 검증, 바람직한 추진주체(공공, 민간), 결과물 산출방법, 가중값 논란 등이 지속되고 있어, 지표통계 개발은 지속하되 다양한 의견수렴 후에 향후계획을 결정할 예정임

“국가통계청은 삶의 질의 단일 요약 측정법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, 사용자의 철학적 관점에 따라 다양한 총합 측정값 시산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”(스티글리츠위원회 보고서, 2009)